

II. 재무건전성규제의 변화

1. 새로운 재무건전성체제로의 이행

금융회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리스크의 파악과 통제가 금융회사 경영 및 감독의 핵심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정책도 변화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보유 리스크에 상응한 자기자본 요구,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감독 시행, 리스크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공시 등이다.

EU에서는 기존 재무건전성 제도가 갖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2004년부터 Solvency I 을 시행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상장회사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2010년 적용을 목적으로 Solvency II와 국제보험회계기준 2단계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은행의 재무건전성 규제인 신BIS협약 최종안은 2004년 6월에 확정¹⁾되었으며, 회원국은 2007년 초 시행 예정이다. 비회원국은 각 감독당국이 시행 여부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도입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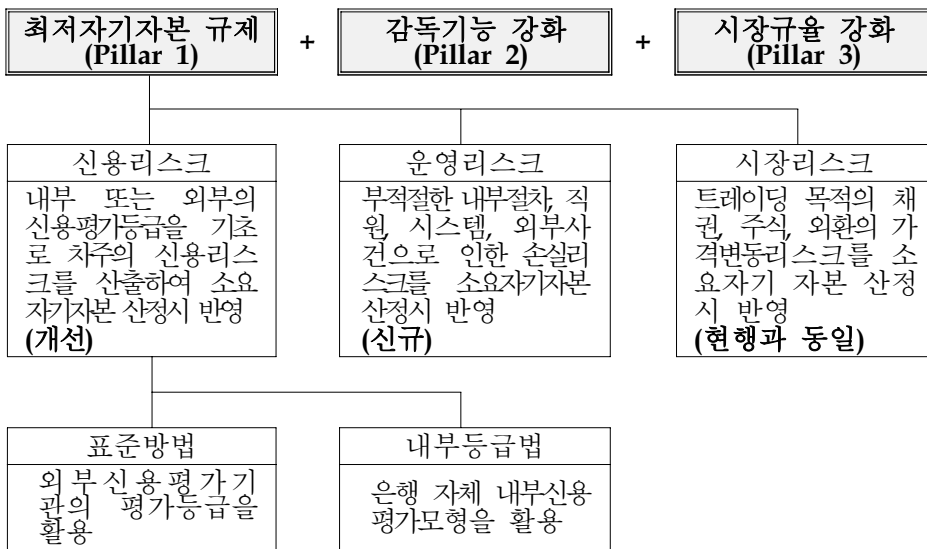
<표 II-1> 감독 및 규제의 주요 변화

시기	주요 변화 사항
2004	EU의 Solvency I 시행
2005	국제보험회계기준 1단계 완성, EU상장회사 국제회계기준 적용
2007	은행권 신BIS협약 적용(2007년), 고급법 적용(2008년)
2010	국제보험회계기준 2단계 완료, EU Solvency II 완료 예정
2011~	EU 국가별 Solvency II의 적용 국제보험회계기준 적용 국가의 확대

1) 2005년 11월 수정보고서가 발표되었음.

새로운 재무건전성체제로의 변화는 Basel II로 불리는 신BIS협약이 선두에 있다.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규제완화와 같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현행 BIS규제의 유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신BIS협약을 추진하였다. 신BIS협약은 리스크관리의 선진화 및 자본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①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1), ② 감독기능 강화(pillar 2), ③ 시장규율 강화(pillar 3) 등과 같은 3개의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2> 신BIS협약의 구조



자료: 금융감독원 신BIS실(2005)

pillar 1의 최저자기자본 규제는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은행이 보유한 리스크유형별 요구자본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용리스크에 대해서는 표준방법(standardized approach)뿐만 아니라 내부등급법(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사용을 허가하였다. 표준방법은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

용하는 방법²⁾이며, 내부등급법은 은행의 내부 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³⁾이다. pillar 2의 감독기능 강화는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을 식별하는 데 감독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제한된 감독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이다. 최종적으로 pillar 3에서는 적절한 공시를 통해 시장규율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서, 감독 규율을 보완하는 시장규율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시장규율은 감독당국의 지도 혹은 간섭 등이 없이 시장참가자들이 사적인 이해를 매개로 형성된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김정렬 2002). Berger(1991)에 의하면, 은행에 대한 시장규율은 은행의 리스크 추구에 따라 주주, 예금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비용이 증가될 때, 리스크 추구 수준에 상응하는 비용⁴⁾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견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정렬 2004에서 재인용). 또한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시장 감시가 이루어지므로 감독당국의 규제유예(forbearance)를 억제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시장규율 강화를 위한 공시의 필요성은 현실 세계에서 시장규율이 실제로 작동하는 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Harrington(2003)과 Flannery·Nikolova(2003)이 시장규율의 효과를 금융회사와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험시장에서도 시장규율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일수록 시장규율이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김정렬 2004에서 재인용). 시장규율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요인들은 공시제도, 예금보호한도, 후순위채권 시장의 발달 정도, 금융시장 성숙도 등 시장참여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감시 유인 등인데, 이 중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보의 획득과 공개 정도라고 보고하고 있다. Nier·Baumann(2003)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공시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금융

2) 리스크 익스포져×표준화된 계수를 적용하여 요구자본을 결정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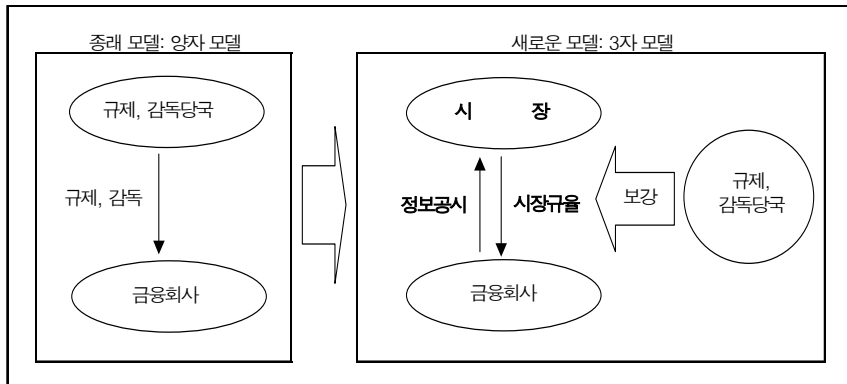
3) 회사의 경험률에 입각한 리스크계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

4) 예금 금리 인상, 발행금리 인상 등

회사의 리스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시 수준이 시장규율의 작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렬 2004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시수준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의 자본구조, 리스크익스포저 및 리스크측정방법 등에 관한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규율을 촉진시키고자 의도한 것이다. 다만, 시장규율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이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시장참여자들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시장규율이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감독모델도 변화하고 있다. 즉, 기존 채무건전성체제 하에서의 감독모델은 규제·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 양자모델이었으나, 새로운 채무건전성체제에서는 금융회사와 시장간 정보공시와 시장규율이 작동하고, 규제·감독당국이 이를 보장하는 3자모델로 바뀌고 있다.

<그림 II-1> 새로운 채무건전성체제 하의 감독모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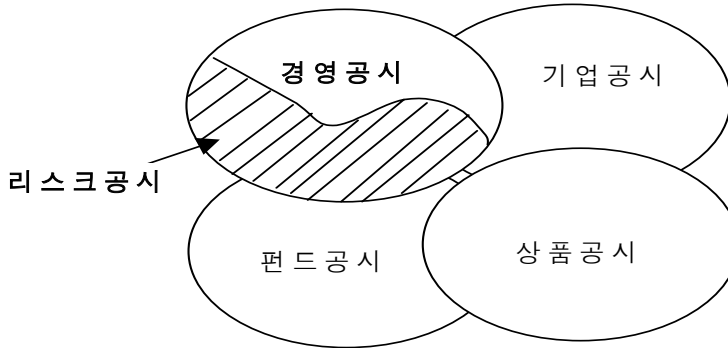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 재팬 종합연구소(2005)

금융회사의 공시는 ① 유가증권 발행자로서의 기업공시, ② 금융중

개자로서의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경영공시, ③ 펀드의 운용방법 및 운용실적 등을 공시하는 펀드공시, ④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상의 계약사항을 알리기 위한 상품공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새로운 재무건전성체제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유통시장 공시 위주인 경영공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리스크에 관한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림 II-2> 금융회사의 공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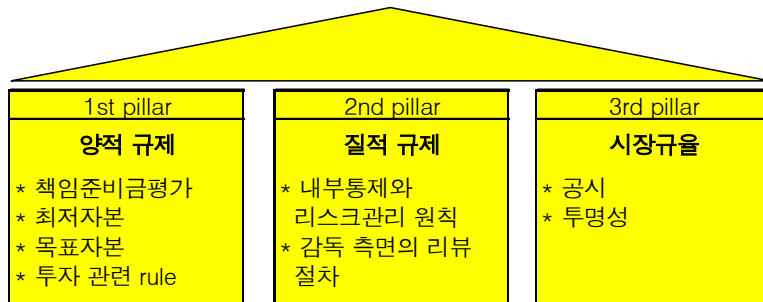
2. 신BIS규제 형태의 보험감독정책 추진

은행에 대한 새로운 재무건전성규제인 신BIS협약은 금융권간·국가간 규제제도 수렴의 경향, 리스크관리 및 규제절차를 일관성 있게 확립하려는 경향 속에서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범금융권 제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EU는 기존의 EU Solvency를 보완한 EU Solvency I을 이미 추진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신BIS협약의 "3 Pillar Method"를 근간으로 한 Solvency II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Solvency II의 주요 내용은 지급여력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의 이원화이다. 최저자본(minimum capital)은 감

독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최소 자본수준이며, 목표자본(target capital)은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리스크를 감당하기에 적절한 자본 수준이다. 요구자본의 이원화를 통해 감독당국의 조기개입과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자는 의도이다. 요구자본 산출은 현재의 단순한 고정비율방식에서 보험회사 리스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3> Solvency II의 3pillar 체계



자료: SwissRe(2006)

이와 같이 신BIS규제가 은행권 중심의 새로운 채무건전성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부문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금융업의 특성상 은행과 보험회사는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즉, 은행과 보험회사의 리스크는 보험리스크를 제외하고는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상대적 중요도 측면에서만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⁵⁾.

5) 은행의 경우는 대출업무의 특성상 신용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보험에서는 위험의 인수로 인해 언더라이팅리스크가 가장 핵심임.

<표 II-3> 금융회사별·리스크유형별 중요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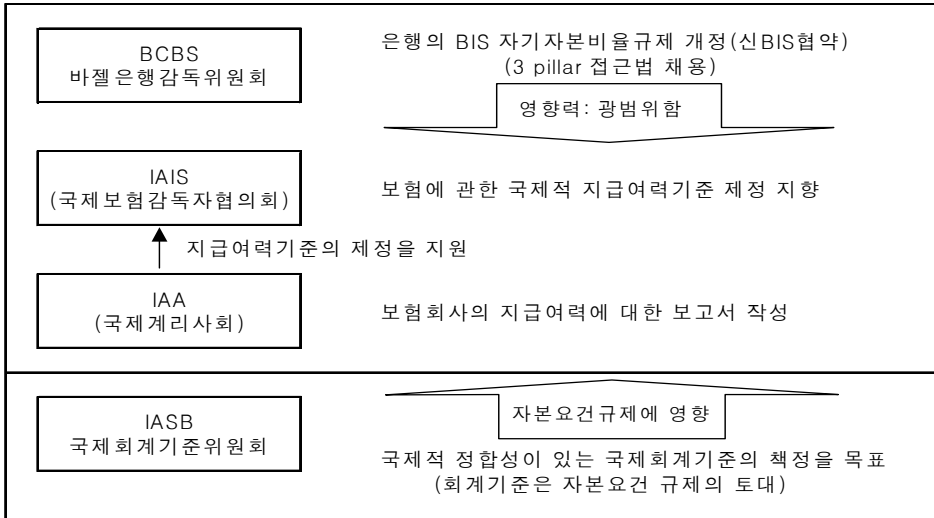
	보험	상업은행	투자은행
언더라이팅리스크	대	무시할만함	없음
비용리스크	소	소	소
신용리스크	중	대	중
계약리스크	무시할만함	소	n/a
시장리스크	소	소	대
유동성리스크	중	대	소

자료: KPMG(2002)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도 보험회사에 대한 국제적 지급여력기준에 부합하는 체제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으며, 국제계리사회에서는 이러한 단일한 지급여력기준의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계리사회에서 2004년에 발표한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의 핵심 내용은 리스크 중심 재무건전성체제의 구축이며 보험회사가 요구자본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리스크관리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IAA 2004).

금융의 통합화와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신 BIS협약 적용, 보험권의 Solvency II 추진과 같은 국제적 흐름은 우리나라의 보험감독정책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미 감독당국에서는 보험회사의 제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노출된 리스크 및 이의 통제능력을 체계적·상시적으로 평가하여 취약부문에 감독자원을 집중·배분하는 선별적·차등적 감독방식, 즉 리스크중심 감독체제(Risk Based Supervision: RBS)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II-4> 신BIS협약의 영향력



자료: 손해보험 재관 종합연구소

우리나라가 리스크중심 감독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자기자본 규제에 해당하는 RBC제도 도입 및 RAAS의 시행과 동시에 이들을 보완하여 시장규율을 촉진할 수 있는 공시의 활성화가 필수적이 될 것이다. 공시의 내용도 과거 회계정보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리스크 수준, 자본적정성, 리스크관리 수준 등 시장참여자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리스크 중심의 정보에 더 많은 수요가 존재할 것이다.

<표 II-4> 우리나라 보험감독체제의 변화

신BIS협약	리스크감독체제
pillar 1: 최저자기자본 규제	RBC제도
pillar 2: 리스크 중시 경영관리 유도	RAAS
pillar 3: 시장규율 강화	리스크 공시